

---

**2022년 제10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문화콘텐츠과**

## □ 심의개요

- 일 시 : 2022. 10. 28(금) 14:00 ~ 18:2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심의위원 12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심의
- 심의안건 : 12개소 29작품(조각 20 회화 9 / 신규 15, 재심의 14)
- 심의위원 : 총 12명 참석

## □ 심의결과

- 29작품 중 가결 21작품(원안가결 9/조건부 8/권고 5), 부결 8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청라동 157-11	조각	The Leave		○	
	2		회화	카오스(CHAOS)		○	
	3		회화	금강산만물상	○		
	4		회화	The Eternal Flame-Golden Yellow	○		조건부 권고
2	5	청라동 93-2	조각	아름다운 비행	○		권고
3	6	청라동 93-3	조각	바람의 숲 (THE FOREST OF WIND)	○		
4	7	송도동 22-12, 13, 14번지	조각	VIEW (뷰)	○		조건부
5	8	운남동 1599-1	회화	빛과 갯벌	○		권고
	9		회화	Space-220713	○		조건부
	10		회화	꿈꾸는 고양이	○		
	11		회화	Love of the Sky	○		
6	12	미추홀구 용현동 624-48번지 외	조각	Seed_Circulation of life (씨앗_생명의 순환)		○	
7	13	중구 신흥동3가 35-22	조각	球-풍선	○		조건부
	14		회화	간석동에서	○		조건부
	15		회화	수평으로 함께	○		조건부
8	16	서구 경서동 124-74	조각	별의 탄생_Nomad.N0.1		○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7		조각	달콤한 오후_Snap NO.1		○	
	18		조각	The Moment-생성공간		○	
9	19	송도동 29-12	조각	우수		○	
	20		조각	선을 위한 세레나데		○	
10	21	서구 경서3도 시개발사업구역 25-3롯데	조각	Happy family_함께 사는 이야기	○		조건부
	22		조각	숲-침터	○		조건부
	23		조각	Sliced images Sunday morning	○		
11	24	운서동 2955 일원	조각	INFINITY	○		
	25		조각	Eternal Light : What makes the Dream	○		
	26		조각	We're Still Hear	○		
	27		조각	We're in the Wonderland	○		
	28		조각	The Return of Nature	○		권고
12	29	연수구 선학동 151-3외	조각	가족	○		권고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0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인원은 총 12분입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 안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12개소 29작품이며, 분야별로는 조각 20작품, 회화 9작품, 이중 신규는 15작품, 재심의는 14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전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도 채점을 하지 않게 되며, 작품에 대해 창작자 정보는 경력과 작품 이력 외에는 비공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채점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 판정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심의신청인과 군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눠드린 사전심의 의견서와 창작자의 출품이력 등을 참고하여 심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중 한분(총 2분)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니 추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해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실 밖에는 작품설명을 위해 작품관계자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자에게 질의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작품은 총 29건입니다. 안건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2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2022년 제10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의 진행 순서는 채점, 집계 결과 발표, 심의 의결서 작성,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 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10차 회의에서는 스물아홉 작품을 심의합니다. 순서는 신규 안건을 먼저, 재심 안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작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물 연번 1번은 총 네 작품으로 두 작품씩 심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작품 <The Leave>와 두 번째 작품 <카오스(CHAOS)>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청라동 157-11

- 1) The Leave
- 2) 카오스(CHAOS)
- 3) 금강산만물상
- 4) The Eternal Flame-Golden Yellow

사회자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작품은 청라동 157-11번지에 위치한 업무시설에 설치되는 신규 작품입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작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왜 두 개만 설명해 주셨죠? 네 개 아닌가요?

사회자      네 작품 중에 네 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1, 2번만 먼저 제안 설명을 했고 3, 4번은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      아, 예.

○○○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      실내에 아마 설치, 공간 설치 형태로 된 것 같은데요.

○○○      이게 옥외 아닌가요?

○○○      이거 실내예요. ...

○○○      지금 통로 바깥에 차양처럼...

- 아~ 예, 예. 옥외구나. 예, 예. 이게 이렇게 설치했을 때 내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 글썄 이게 와이어로 용접해 붙이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뭐 이런 데 잘 견딜 것 같은데요. 시각적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이것이 스테인리스를 용접했기 때문에 튼튼할 겁니다.
-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심의도서 12쪽을 보면 설치되어 있는 벽 부착면에 작품이 설치돼 있는 그것을 봤을 때 조금 빈약한 면이 있어서 안전성이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림 사진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이 부착면이 펜스랑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도면을 보면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어쨌든 안전성에 조금 더 어떤 볼트라든지 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작품이 심의해서 가결이 되면 작가한테 그 부분을,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 화면에서 지금 어떤 작품성을 떠나가지고 저게 낙엽으로 낙엽 형상입니다. 저기 틈새로 인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저거 이제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었을 때 그 하중은 상당히 큼니다. 저 상태가 구조계산서를 봤을 때 일부 흔들림에서도 견디도록 돼 있는데 어떤 눈으로 인해서 적설이 문제가 아니고 얼었을 때 그 하중, 그다음에 낮이 돼가지고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밑으로 물들이 쪽쪽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 추후에 보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거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가 얼었다가 이제 눈이 살짝 녹으면서 다시 얼면 그게 다시 눈이 쌓이면 많은 하중을 받게 되겠죠, 틀림없이. 그래서 이 작품이 저기 심의가 이제 가결되면 그것도 뭐죠? 조건부로, 뭐죠? 구조계산을 받으면 어떨까 싶네요.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뭐 구조계산을 받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이용해서 작품을 세우는 것도 아주 창의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만큼 실험적으로 하다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팽창과 수축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멘트와 철과 스테인리스와의 팽창과 수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

거나 아니면 공간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건물에 부착돼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구조계산 시에 고려가 되어서 명확하게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고요, 구조계산서를 받을지 말지는.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종의 공공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형 작품이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자기 개인적인 이유 말고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자기 개인적인 이유만큼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심의위원들 동일하게 다 생각하는 게 바로 안전성의 문제예요. 사실은 공공미술이 아시겠지만 개인의 어떤 작업에 창의적 역량이 공공의 장에 들어올 때는 거기에 적용이 되고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인 태도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뭐 잠깐 설치했다가 마는 전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적어도 5년 이상은 가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 경우에는 건축이 시행될 때 건축하고 같이 연결돼서 해야 될 정도로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다 건축된 다음에 부착하는 형식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굉장히 클 겁니다. 큰 거면 가서 그래픽 상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품 설치 장소나 작품의 형태 이런 것들의 어떤 실험성은 용인이 되나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작가의 개인적인 작업이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들 채점해 주시고요.

(채점 중)

○○○ <카오스(CHAOS)>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나요?

사회자 예, 같이 했습니다. 1번, 2번 같이 했습니다.



○○○ 같이 채점하는 거죠?

사회자 예.

○○○ <카오스(CHAOS)>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들이 ...

○○○ <카오스(CHAOS)>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사실 제가 이번에 심의 사전 검토서를 보면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작품의 명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떻게 보면 작품보다 먼저 보고 싶은 어떤 작품 명제가 작품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의 명제가 작품의 형상과의 어떤 이해관계, 작품의 명제를 보고 작품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수궁이 되거나 또는 감정 이입이 되거나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출품된 작품들은 작품하고 명제하고 좀 따로 논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작품 명제가 사실은 또 굉장히 형식적이고 ‘명제로 이름이 좋으면 좋은 거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작업 작품의 명제를 만들지 않았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 제목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사실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CHAOS)>라고 하는 제목이 작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어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기법 실험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좋은데요. 저기 작품의 명제 때문에 저는 작품이 많이 퇴색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예. 또 저 작품도 저거는 오히려 코스모스에 가깝지 카오스는 아닙니다. 이것도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작품 제목을 좀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저 밑에 설명판이 좀... 제가 조각을 전공함에 있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좀 설명이 있었는데 약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좀 저거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면.

뭐 ‘합성섬유의 메탈 부분을 용해하여 분산 염료를 이용한 침염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관객은 저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먼저 보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이게 무슨 방법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수정하는 것을 좀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 아, 그렇군요. 제가 작품 설명서를 미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 아닙니다.

○○○ 예.

○○○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마띠에르를 쥐가지고 그렇게 입체감 있게 하는 거는 좋은데 저기가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먼지가 쌓일 경우 처리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릴 판을 씌우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리하자면 조건 사항이 많네요. 아크릴 액자를 씌운다. 또 제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 도면에 보면 아크릴 액자가 돼 있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

○○○ 아크릴

○○○ 26페이지 보면,

○○○ 액자가 들어있는 건가요?

○○○ 26페이지 보면 아크릴 표현이 ...

○○○ 음, 그렇군요. 예, 예.

○○○ 26페이지.

○○○ 그거는 제외하고 ○○○ 위원 말씀대로 ‘작품 설명을 일반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구 수정을 한다.’ 이렇게, 예. 더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 1, 2번 채점하시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서기 채점지 오른쪽에 놔두시면 저희가 취합하겠습니다.

(채점 중)

위원장 예. 다음으로 3번 <금강산만물상>과 4번 <The Eternal Flame-Golden Yellow>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3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회화 전공한 위원님 뭐 의견 없으십니까?

○○○ 저 안전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테인리스로 마감  
을 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벽에 부착하는 이런 액자나  
그림하고 다르게 마감이 스테인리스인데 거기 무게에 대한 게 나와 있  
지를 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벽체를 보면 기존에 있는 벽체에서 마감  
두께라면 한 7cm 내지 한 8cm 정도 되는데 저거를 저기에서 제시한  
양카나 저기에서 있는 저 캔버스 가지고 되는지 그거는 상당히 좀 의  
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작가가 평소에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을 캔버스에 부착하는 작업을  
했었나요?

○○○ 예.

○○○ 아, 그래요?

○○○ 예.

○○○ 예. 그러면 자기 작업에 대한 노하우는 있겠네요. 예.

○○○ 이 작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라,

○○○ 아, 그래요?

...

예. 작품이 상당히 새로운데 새롭고, 예.

- 이 작품을 가지고 많이 뭐 활동하는 작가로 알고 있어요.
- 이번 작품 경력 사항에 보면 다른 흰색 작품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 색채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대리석하고 비슷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안전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아크릴을 처리해서 거기 먼지라든지 혹시라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저 작품을 아크릴 박스를 씌우면 작품의 느낌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요?
- 좀 날카로운 느낌이 듭니다.
- 예.
-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회화 작품들이 액자를 하면 보호 차원에서 액자를 하는데 액자를 하면 대부분 감상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관이나 관리 문제 때문에 액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 작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픽 상으로는 상당히 어둡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느낌까지 드는데 실제로는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생겨서 어둡게 보이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무게 문제는 사실 벽에 이렇게 밀착이 돼가지고 수직으로 받는 그런 중량은 굉장히 무거운데 벽이 잘 견딥니다. ... 충분히 견디고 무게의 그런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작품이 이제 그래픽보다는 사실 실제로 보면 약간 미세한 공기에도 저기 이제 스테인이 좀 움직일 정도로 약간 진동을 하면서 빛이 약간 움직이는 그런 효과도 아마 나타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금강산 작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혹시 그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보면 너무 고루하고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좋게 보면 ‘상당히 학구적인 작품이다. ... ’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신선하게 보고 또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신선하게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사실 가벼운 거고 이거는 이제 물감으로만 하는 그림이라서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봤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채점하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스테인리스 작품에 다소 좀 차  
갑고 어두운데 여기에 조명을 좀 따스하게 이렇게 비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 저 작품은 조명에 의해서 저게 빛을 반사에 따라 그러니까 굉장히 생  
동적인 작품이죠. 빛이 아주 생동적인,
-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그냥 차가운 색보다 따뜻한 색으로 좀 이  
렇게 해주는 것이, 그 작품의 물론 성향이 차갑게 나는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면 많은 사람들  
은 건축 미술이니까 마음속에 따뜻한 어떤 분위기를 풍겨주면 좋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먼저 아크릴 작품, 저 작품 어떤 작가가 어떤 환경 조형물이라고 생각  
하면서 제작한 작품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개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 공공성과의 연계성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 작품의 어떤 빛  
을 굉장히 스스로 이동시키는 그런 거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권장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채점 중)

## 2. 청라동 93-2번지

### 5) 아름다운 비행

위원장 예. 그러면 그다음, 5번 <아름다운 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자 5번 <아름다운 비행>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 이번 작품들 심의 대상 작품들을 보니까 거의 조각 작품들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작가가 물론 다 했겠지만 공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런 작품들이 어떻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을 경우에 제가 조각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점이 뭐고 또 조각가 입장에서든 좋은 점은 뭐고 공공적인 어떤 측면에서 좋은 점은 뭔지 좀 조각가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전부 다 스테인리스 스틸이길래 제가 한번... 부식이 좀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 그거 뭐 그렇겠죠.

○○○ 그리고 주물이 조금 작업하는 데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일반적 ... 그러니까 아마 스테인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쪽을 좋아 ...

○○○ 요즘에 아파트나 이런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중의 문제가 커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은 외부에 세워지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좀 주로 쓰고 돌이나 이런 작품 이런 작품들은 간간히 나오지만 중량 때문에 많이 선호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중에 좀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작가들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씁니다.

○○○ 그래서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뭐 심의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천편 일률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 들어가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을 한번 이렇게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물론 뭐 그런 장점도 많고 실용적이겠지만 그것이 작가의 어떤 예술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좋은 지적이십니다.

돌 부분은 그전에 몇 년 전에 한 3년 됐나? 2년인가 3년 됐나? 동탄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돌로 다 된 새로운 작품이 있었어요. 2층 모양으로 접합시켜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 바로.

○○○ 저기 양카는 안박았나요?

- 양카를 박았는데 약하게 박았던 거예요. 그게 새벽녘에 무너져갔고 저 아는 지인이 거기 살았었는데 지진이 난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시흥인가 전체가 다 그냥 부결시키고 막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밑에가 전부 지하 주차장이니까 그런 하중의 문제도, 견디는 하중의 문제도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좀 배제하는 것 같아요.
- 통석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
- 네.
- 통석으로 썼을 때 중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 중량이 엄청나죠.
- 주로 아파트가 주차장을 입구로 빼지를 않잖아요. 지하로 빼기 때문에,
- 주차장에 물론 주차장, 저도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가 어떤지 알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게 아파트 밑에 주차장만 있는 거는 아니죠. 잘 골라서 ... 위치를 잘 선정하면 되는 거지 뭐 밑에가 ... 주차장이라는,
-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기기 위해서 그 기준을 넘으면 안 되니까,
- 여러 가지 뭐 또 고려사항이 있겠죠.
- 아, 예. 두 작품이 서로 보니까 인접 대지에 설치가 되게 돼 있고 건축물을 보면 거의 쌍둥이 빌딩처럼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각각 건물 완공 시기는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정확한 위치가 좀 확인이 좀 어렵지만 두 작품이 서로 보이는 위치에 설치가 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작품 간에 서로, 서로 같은 시각에서 봤을 때 뭐 연관성이 있는 건지 좀 어울리는 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작품 번호 5, 6이 같은 곳에 설치되는 작품인가요, 두 개가?

사회자 5번과 6번 지면이 93-2번지하고 93-3번지 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청라동에 있는 거예요.

○○○ 아, 같은 건물 앞에는 아니죠?

사회자 다른,

○○○ 서로 인접 대지에 두 동이 거의 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올라갑니다, CG 보시면.

○○○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기 예, 맞습니다. 하나는 2번지, 하나는 3번지입니다.

○○○ 음... 작품이 <아름다운 비행>이나 <바람의 숲>이나 지적하자면 지적할 것이 없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작가적 역량이 있는 사람의 작품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고 나름대로 좀 미적 감성을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픽 상으로 보는 저 색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느껴지지만 형태의 변형 같은 거에서 상당한 창의적 고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름다운 비행인데 왜 땅에 내려앉은 거를 해놓고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름다운 비행을 위한’ 이라든가 ‘아름다운 비행을 향한’ 뭐 이런 설명을 저는 언뜻 떠올렸는데 아름다운 비행은 날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땅 바닥에 정착돼 있는 모습을 해놓고 이런 비행이라 했을까... 이게 제목에서부터 또 약간 언발란스가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5번, 6번 작품은 아주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상의 조형물은 아니지만 나름 기존에 있는 형상을 창의적으로 좀 변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저도 좀 해학적으로 봤거든요. 색깔도 사실 다소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 좀 동양적인 색감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해학적으로 좀 형태적으로 좀 재미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스테인리스의 차가운 거를 배제시킨 그런 ... 컬러를 입힘으로써 이제 컬러 도장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작가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 공간을 붙임으로써 잔디밭에 돌아다니는, 꼬마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염려스러운 건 어린 학의 날개짓이 조금 날카로운 거 이런 부분만 조금 보완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뭐 굴림을 하겠다고,

○○○ 예, 그렇죠. 예.

○○○ 해놔갖고.

○○○ 이 작품이 승인을 받으면 그런 부분을 좀 저기 모서리를 둥글게 굴려서 다치지 않게 해달라,

○○○ 그런 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요새 하도 뭐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으니까 작가들이 알아서 뭐 다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또...

(채점 중)

○○○ 예. 그러면 저기 그다음 작품...

사회자 5번 작품 채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아직 안 끝났나요? 예. 작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쫓기듯이 일을 해야 돼서...

사회자 채점 끝났습니다.

○○○ 예.

### 3. 청라동 93-3

#### 6) 바람의 숲

위원장 그다음 6번 작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사회자 예. 6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작품 띄워줘 볼래요?

사회자 예. 지금 6번 작품입니다.

○○○ 이게요?

사회자 예.

○○○ 5번 작품, 6번 작품은 한 건물 빌딩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내용적으로 연계성이 있네요.

○○○ 지금 보이는 6번 작품이 근린생활시설 앞에 설치되는 겁니다. 저게 지금 형상, 이 앞이 제일 처음에 작품들처럼 겨울에 이제 눈이 오고 얼고 고드름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런 것 때문에 주변에 울타리를 치면 작가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또 낮게 치면 또 애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런 것들이 그전에도 보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건부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저 작품의 생명이 저 앞인데 저 앞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좀 걱정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저는 구조가 따로 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무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무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게는 충분히 견뎌요. 저런 틈새에서 생기는 고드름 ...

○○○ 고드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저거를 보니까 그냥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나 판을 그냥 물이 좀 고이고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 빠지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부분 여기 있으니까

○○○ 저기 쪽 있으니까 겨울에 눈이 내려서 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문제죠.

- 그리고 2, 3층에서 떨어지는 고드름도 많은데요, 뭐.
-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구조계산서도 세울 수 있게 어떤 거기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 구조에 대한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조는 제가 언급을 한 번도 안 했고요.
- 모든 조각 작품에 대한 저런 위로 높이 솟아 올라가 있는 작업들이 많은데 그것은 좀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 고드름 같은 거가 ...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독적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독립된 작품이기 때문에 차갑고 덥고의 수축, 팽창 그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 어쨌든 뭐 권고건 조건부 적합이건 간에 어쨌든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가 저 위 이파리 뭉쳐진 부분에서 다들 의견들이 나오시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설치할 때 제작할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고민했겠지만 더 고민을 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라는 거를 좀 알려주죠.
- ( “예.” 하는 사람들 있음)
- 나무를 응용해가지고 하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약간 차이로 좀 좋은 것도 있고 약간 차이로 유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 작품은 뭐 약간 좀 바람에 날리는 듯한 형상이 뭐 어떤 심의위원님께서 자연과 비교되는 자연의 나무와 비교되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 주셨듯이 재미있는 나무 형상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데 이게 그냥 스테인만 있었으면 작업이 좀 평이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밑에 석재를 우리 소나무를 연상시키듯이 석재를 적절하게 좀 배치해서 좀 되게 재미있는 작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채점 중)

#### 4. 송도동 22-12, 13, 14번지

##### 7) VIEW (뷰)

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작품 7번 <VIEW (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7번 <VIEW (뷰)>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저게 손이라는 것 자체가 잘 많이 조형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 손목을 잘라 놓아가지고 물론 작가의 의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저런 어떤 디자인적으로 어떤 조형적으로 좀 예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목까지도 이렇게 표현해서 제대로 좀 만들면 좋겠고 마무리도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조각가가 좀 젊은 조각가라 저는 잘 모르는데

○○○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관절을 안 자른다 그러더라고요. 관절을 자르는 거는 아주 그거는 제로예요, 사진 작가분이 말씀하시기로.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찍을 때 또 작품을 만들 때 관절을 단절시키는 그런 거는 안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게 혐오스러운 마음을 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것도 보면 관절 부분이 잘리니까 손이 좀 뭔가 혐오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어쨌든 뭐 로댕의 손도 있고 저쪽 코엑스 앞에 가면 뭐 손도 있고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작품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손의 조형성을 볼 때 저렇게 잘라버리면 어떤 미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기 사진을 보니까 저 손가락마다 좀 틈새가 좀 있죠? 저게 높이는 있지만 어린애들이 저 손을 집어넣으면 딱 다치기가 딱 좋은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저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 저 아까 관절을 잘랐다는 말씀하셨는데 개선할 점 의견에 보면 높이가 한 1.4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또 머리를 좀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면 혹시 뭐 자른 위치를 조금 더 손목이 더 많이 나오도록

좀 조형적으로 조정해서 높이를 좀 더 올려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예, 그러니까.

○○○ 저도 오랜만에 구상 작품이 나와서 되게 처음에는 좋게 봤는데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조절을 한다면 간만에 구상 작품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어떤 뭐 그런 조건을 달고 뭐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 만약에,

○○○ 예. 가결이 된다면,

○○○ 승인이 되면 이제 심의 결과가 긍정적이 되면 “손목을 좀 올려라.” 그렇게,

○○○ 그러니까 70점 이상이 나와야...

○○○ 요청해서 조건을 달면 되겠습니다. 조금 언캐니 하네요.

○○○ 아직 뭐 크기에 대해서 작가만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아마 지금 의견들을 저도 동의하는데요. 손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조형물을 만들 경우에는 손의 느낌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작품인 것 같고요. 손 자체를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형상을 좀 위로 높인다든가 다른 자세를 갖는다든가 그러면 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이 향하는 어떤 다른 감각을 좀 노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을 그냥 땅에다 박고 손 자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손 자체가 과연 이 장소에 어울릴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손을 가지고 새로운 조형성을 만들어냈으면 또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 예,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채점으로 넘어가시죠. 채점 중간에 또 의견 있으면 우리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점 중)

## 5. 윤남동 1599-1

8) 빛과 갯벌

9) Space-220713

10) 꿈꾸는 고양이

11) Love of the Sky

위원장      다음 작품 8번부터 11번까지의 안건 심의는 8번, 9번, 10번, 11번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빛의 갯벌>, 9번 <Space-2022년 7월 13일>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8번부터 9번, 11번까지의 작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회화 전공 선생님 의견 있으신지요?

○○○      대체적으로 추상 의도로 해서 갯벌에서 전체로 어떤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거는 굉장히 공감이 가기는 하지만 어떤 갯벌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좀 갯벌 같지 않지 않냐... 추상적인 작품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      저도 의견이 비슷한데요. 사실 조금 약간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시겠지만 혹시 인천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갯벌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라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작품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작품의 제목을 굉장히 작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법 실험, 재료 실험이 현란하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와 있는 작품을 갯벌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 인해서 형상 자체를 자꾸 갯벌과 연관 지어서 그림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사실 갯벌이, 갯벌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꿈꿨다 이러면 몰라도 갯벌이 사실 저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미지로서 자기 작품을 제목을 붙일 거면 그 이미지와 좀 조화로울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갯벌을 넘어서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의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제목 때문에 좀 50%가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라고 건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진짜 진실한 저 작품의 제목인지는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갯벌을 저렇게 환상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 그러니까 이상적인 갯벌이라고 한다면,
- ... 빛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그 빛에 의해서 좀 이렇게 변화가 된 상태로 보면 괜찮겠죠.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꾸 제목이 작품의 질을 좀 떨어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품 자체는 뭐 실험적이고 공공미술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 다음 작품 설치 위치가 보니까 1층에 장애인 경사로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 램프가 설치가 되면 벽면에 장애인 핸드레일이 설치되는데 입면의 설치 계획 높이를 보면 장애인 핸드레일과 좀 간섭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그런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지금 해바라기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 예.
- 사회자 9번 작품 해바라기
- 예, 9번 작품.
- 예.
- 9번 작품, 9번이 해바라기인가요?
- 예. 해바라기 이미지를 파편화, 절단해갖고 이거 다시 반복, 그 이미지를 반복하는...
- 컴퓨터 확대해서 보면서도 저거 평가할 때, 서면 평가할 때 해바라기로 보고 평가 ... (웃음)
- 예. (웃음)

- 설치 위치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 예. 좀 협소해 보이네요.
- 예, 예. 투시도 상으로는 안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니까 공간이 아주 협소한 게 두 개가 뭉쳐 있네요. 위치, 혹시 통과되면 위치를 좀 변경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권고로...
- 지금 저기 심의위원 선생님들 우리 말씀하시는 조건사항이나 권고사항 같은 게 따로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물론 심의 통과된 후에 얘기겠지만.
- 서기2 위원님들이 채점표에다가 의견을 달아주시면 좀 제가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가결되었을 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 예, 감사합니다. 예.
-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에는 높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 그랬을 것 같은데요.
- 위치를 바꾼다기보다는 지금 높이가 2m 66 정도 나오는데요. 오히려 그냥 그 높이를 조금 작품의 사이즈를 줄이는 식으로 권고를 해드리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한 4m 되죠? 거기 거기에 높이에 대해서 안 나와요?
- 지금 갯별 그림보다 해바라기 그림이 더 큰 건가요, 규격이?
- 서기 길이가 ... 이 벽은 4m인데 이게 2m 66으로 돼 있어요.
- 2m 20으로 돼 있는데요? 아, 그 아래 작품...
- 서기 예, 해바라기.
- 해바라기.



○○○ 2m 66 나와 있어요.

○○○ 이게 아크릴 액자가 씌어있나요?

○○○ 높이가 4m라도 안전바 높이 위에다 설치하고 또 천장 끝까지 설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품이 어쨌든 천장에서 1m 이상 내려와서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건물 외벽이나 외벽, 내벽에 두는 작품들은, 저 작품 자체는 좀 높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권고사항을 좀 줄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 개인 취향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세로로, 저거를 가로로 걸면 안 되는 건가요?

(일동 웃음)

○○○ 작가가 선택하는 거니까.

○○○ 작가니까.

○○○ 작가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면 그렇게 하고,

○○○ 작가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물어보면 좋겠는데.

○○○ 저 해바라기가 뭐 모양이 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 예.

○○○ 저기에, 아니 저기에 숫자가 안 적혀져 있어요?

○○○ 예?

○○○ 저 안에 글씨가 숫자가 들어가 있을걸요?

○○○ 숫자는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즈를 알리려고 숫자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 그 안에요?

○○○ 사이즈, 네모 사이즈.

○○○ 그거를 가로로 하면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죠.

○○○ 숫자가 다 옆으로 눕게 되겠네요.

○○○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되...

○○○ 아니,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크기 ... 크기.

○○○ 숫자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죠.

○○○ 맞아. 맞아. 그러네요.

○○○ ... 크기를 알려주는 ...

○○○ 아니, 저 안에, 안에 보면 1, 6,

사회자 개별 작품에 대한 저기 예시가 1번은 몇 cm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작품들한테,

○○○ ...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 지금 저기 작가 선생님이 밖에 계신가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쭙봤으면 좋겠어요. 예.

사회자 예. 9번 관계자 오셨습니다.

관계자 안녕하세요.

○○○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작품이 세로로 길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잡는 손잡이와 가까워서 작품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또 통행에 불

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이렇게 가로로 걸어도 상관없겠는가를 여쭙고 싶어서 오시라 그랬습니다.

관계자      그거는 작가분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저기 작품은 더구나 이제 약간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걸어도 이렇게,

○○○      무난하죠.

관계자      작품에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다른 위원님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작품을 가로로 거는 거로 권고하는 거로...

(채점중)

위원장      ... 네, 사회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10번 <꿈꾸는 고양이>는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네, ○○○ 선생님.

○○○      네, 저는 처음에 이 작품... 고양이 작품을 조금, 너무 조금 난해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작품들이 보통 너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비슷한 결의 작품이 많은 거 같은데 이 작품이 그 안에서 좀... 이 작품만 봤을 때는 조금 난해했는데 그 작품 이랑 어울릴 때 좀 괜찮은 작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별히 제가 뭐 회화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만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미관을 해친다던가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네.

○○○      저는 <꿈꾸는 고양이> 회화작품이요. 처음 저렇게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저 뷰가 아니라 작품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순수하고 순진 무구한 작품이다. 그렇지만 약간 좀 진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에 놓였을 때는 사실 뭐 굉장히 매력적이고 신선한 아우라를 뿜어낼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뭐 ‘저기 그냥 그 자리에 원래 있었지.’ 라고 하는 정도의 약간 존재감이 약간 떨어진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 이미지 자체가 변형돼가지고, 변형돼 있지만 어떤 이미지인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작품 감상하는데 난해함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작품의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Love of the sky>는 조금 아까 갯벌하고도 좀 이미지가 비슷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작품은 <꿈꾸는 고양이> 보다는 더 진부함을 좀 느꼈습니다. 표현 기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한 거를 갖다 두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작품 자체가 주는 신선한 매력이나 뭐 시선을 끄는 어떤 요소 같은 게 특별히 없어서 상당히 밋밋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꿈꾸는 고양이>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하도 저런 스타일의 그림들, 아까 뭐 ○○○님이 진부하다고까지 표현을... 그것이 요즘에 어떤 대세처럼 굳어져가지고 어떤 예술적인 어떤 모험이나 실험 이런 거 없이 그냥 도상적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가는, 고민 같은 거는 좀 많지 않아 보이고요. <Love of the sky>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아래 같은 경우는 어떤 작가가 어떤 형태를 해석하는데 나름의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오히려 공간 같은 경우 너무 파랗고 무겁게 칠해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보는데 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어떤 회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티에르나 어떤 형식적인 측면 같은 거는 이제 작가가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오히려 상단 부분 같은 경우 좀 더 밝게 이렇게 좀 매체를 이렇게 실험하면서 추상성이 드러나도록 그리면서 어쨌든 저게 누가 봐도 저건 하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좀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물질 실험이나 어떤 형식 실험 같은 걸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공공미술 작품으로서 뭐 썩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처음에 볼 때 “<빛과 갯벌> 작가님이랑 이 작가님 같은 분이신가?” 라고까지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이 건물 안이 4개의 회화작품이 걸릴 때 전체적으로 그냥 갤러리 안에서 본다는 생각을 갖고 봤을 때는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난하다 정도에서 그친 거고, 크게 미관을 저해한다는 느낌은 저는 받지 않아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시도 이런 것보다는 무난하다 이런 느낌으로...

○○○ 무난하다고 보면 무난한 거는 맞는데 오히려 좀 진부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 거기 작품이 진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진부해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고, 사실은 작품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공간에 저렇게 놓일 때는 공간 자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있어야지 그 분위기, 공간 자체가 좀 환기가 되는 게 있는데, 작품 자체가 진부하면 뭐... 저분의 작가로서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개인전 같은 걸 하면 아마 작품의 포스가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공간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퇴색될 수 있고, 진부해질 수 있고, 그냥 밋밋해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 공간에 놓였을 때를 가상해서 작품을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채점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채점 중)

## 6. 미추홀구 용현동 624-48번지 외 필지

### 12) Seed\_Circulation of life(씨앗\_생명의 순환)

위원장 네, 다음 <Seed\_Circulation of life>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2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조각 전공 선생님 의견 없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세요.

○○○ 아까 제가 재료적인 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작품에서. 이거는 또 별개로 석재와 금속이 좀 이게 어울림이 별로 안 어울리는 작품으로 이렇게 조금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하게 아까 그 석재, 노송 느낌의 석재 느낌은 오히려 밸런스가 맞는데, 이거는 표현되는 것에서 아예 금속만 쓰던지, 석재만 쓰던지... 오히려 석재 표현이 더 나쁘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이 작품에서 안 어울리는 점 중의 하나인 거 같습니다.

○○○ 좌대 말고 저 뒤에 있는 그 계란 모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동그란 원의 그 석재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금속이 물방울처럼 또

뒤편에 하나 있고 이러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조형적인 면에서 좀 어울림이 가감되는 조금...

○○○ 내용이랑 저 형태가 틀림이 없지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는 보는데 사실 여기서 조형 쪽에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저런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유행처럼 되게 신선한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최근에 그냥 유행하는 저런 어떤 기하학적이라고 해야 될지, 저런 어떤 선적으로 칠하고 약간 스테인리스 그 조형... 약간 파서 표현하는 저런 형태가 너무 많아서 작가분의 의도는 잘 맞을 수 있으나 형태적으로 너무 최근에 한 3~4년 동안 너무 많이 나온 그런 형태의 작품이 아닌가 약간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저도 동의합니다. 뭐 재료도 구조 ... 갖고 색감도 그렇게 막 동물과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나 뻥한 전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거나 아니면 독특하거나 어떤 조형성이나 예술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회화의 경우는 오히려 개성적인 작업들이 많은데 이 조각은 몇 가지 패턴이 있어서 작가들이 서로 모방을 하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하고 어디서 다 본 작업들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참 이거... 작품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웃음) 예.

○○○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 심의 위원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심의라고는 하지만 심사를 겸해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품들이... 물론 뭐 작가들 입장에서는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게 제한 사항이 너무 많고, 특히 안전이나 그런 쪽에서 제한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들 안전... ‘작품이 좋으면 어떻게 하나?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굴리게 되고, 돌리게 되고, 꼬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적절히 뭐 석재와 스테인리스를 적절히 섞어서 진짜 새로운 모습이 나오면 좋은데 마치 섞음을 위한 섞음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온 거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요즘 말로 흔히 AI가 만들어내는 작품과 같은 너무나 형식적인 뭐 그러면서도 이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먼저

하고 창의적인 쪽으로 결핍된 것을 그쪽으로 메꾸다 보니까 사실 ‘어, 저 작품 재밌다.’ 라고 하는 작품은 한 번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자체는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조금 어쨌든 요즘은 밖에 나가서 저런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역량 이전에 ‘저거 누가 통과시킨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의위원들의 책무가 사실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의견이 분분한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작품으로 여길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심의 위원들이 다 똑같진 않지만 좋은 작품은 알아볼 수 있거든요.

○○○ 또 부연해서 의견 발표하실 분 안 계시나요?

(채점 중)

## 7. 중구 신흥동3가 35-22

13) 球-풍선

14) 간석동에서는

15) 수평으로 함께

위원장 다음 13번부터 15번까지는 일관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세 작품을. 13번 <球 -풍선>, 14번 <간석동에서>, 15번 <수평으로 함께>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3번, 14번, 15번 작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동안 대화 없음)

○○○ 조각 작품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접근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떤 조형성, 그러니까 뭐 구상적인거나 어떤 추상적인 거는 잘 어울리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풍선인 거죠. 하늘에 떠 있는 건 어떻게 고정시키는 거죠?

○○○ 천장에다가 매단 거 같은데요. 필로티 구조니까,

○○○ 아...

○○○ 네, 천장을 이용해서.

○○○ 아, 저기.

○○○ 네, 네.

○○○ 조금 이 작품 보면서 공간을 굉장히 재밌게 잘 구성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특별하게 느꼈어요.

○○○ 네, 네.

○○○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인데 되게 동화적이고 이렇게 좀 보기에 경쾌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작품 설명은 되게 무겁게 기초로 들어가서 하는 거 같아서 작품 설명과 좀 안 어울리지만 이게 놓인다면 보는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 멜로디는 아주 뭐 댄스곡인데 거기 담기는 가사는 슬픈 가사가 있는 것처럼...

(웃는 사람들 있음)

○○○ 네, 오히려 그런 게 효과를...

○○○ 이미 잘 알고 있는 형태와 구성이지만 작가의 장소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조금 ...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아마 견고하게만 설치가 된다면 위험성도 없고 그리고 볼 때마다 좀 흥겨운 느낌을 줄 거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 지금 저기에 소녀가 있는데요, 저 수직 파이프가 구조 계산서를 보니까 구경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두께하고. 그 밑에다 U자 라운드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저게 매달리면 조금 위험한 게 하나가 있고, 앞에서 봤을 때 소녀상 뒤에 수직 파이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수직 파이프하고 소년하고 그 공간이 좀 좁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그 공간을 조금 넓히는 게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다니기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그 어린이들이 사이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동



의합니다.

○○○ 견고한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견고한 설치. 견고한 구조,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 이 문제도 승인되면 그걸 권고해서 공간을 좀 확보하자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조각에 대한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 회화 작품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회화 전공하신 선생님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이 사실은 굉장히 보기 쉽고 편안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심의 초반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작품 제목이 작품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품 표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리즘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은 담백하게 표현된 게 상당히 저런 식의 작업을 많이 해본 사람 작품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같은 화분을 해서 주제를 2개 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작품에서도 작품 제목도 상당히 센스가 있고 작품의 구성이나 묘사력, 그리고 전체가 완성된 느낌이 주는 풍경과 분위기 그런 것들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간을 상당히 환하고 밝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신선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는 회화 전공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개인적인 추억이 많이 담긴 작품이라서 이런 공공장소에 걸려지기에는 좀 대중성이나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저는 저기 서면 평가할 때 뭐 직접 작품을 보진 못했지만 뭐라 그럴까 너무 표현하는 게 좀 미숙하고, 그러니까 구상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 실력이 딱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작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발표나 그런 거에서는 자기의 어떤 노력하는 게 면모가 보여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것이 공공장소에 갔을 때 ‘무슨 아마추어 작품을 걸었나?’ 그런 어떤 의구심 같은 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 회화는 아니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물체 하나하나는 상당히 어설픈 거 같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모여짐으로써 아주 자연스러

운 마음에 드네요.

○○○ 글쎄요, 그런 거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작가 역량 같은 걸 전 얘기하면...

○○○ 아마추어 그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또 과거 프랑스에 있었던 수하파 화가의 그림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 의도적으로 ...

(웃음)

○○○ 네, 다음 위원님들 주관적으로 점수 매기시면, 네.

○○○ 이 작가님 작품 보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사전 심사 때 그 작품들이어서,

○○○ 네.

○○○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또 이해가 가기도 가고 하는데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보면 벽에 고정하는데 그냥 와이어로만 고정 되게 되어있어요, 이 설치 방법에 보면. 저는 그 부분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가벼운 그림이지만 공공장소다 보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좀 설치 방법에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네.

○○○ 맞습니다. 고리에, 고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공공장소 있는 거니까 고리도 걸고 하단에다가는 고정하는 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단에, 움직이지 않도록.

○○○ 이 작품을 승인받으면 그걸 보완을 할 것을 조건부로 하든가 뭐 권고하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점 중)

## 8. 서구 경서동 124-74

16) 별의 탄생\_Nomad.NO.1

17) 달콤한 오후\_Snap NO.1

18) The Moment-생성공간

위원장 16번 작품부터는 재심의 작품입니다. 예, 16번부터 18번까지 일괄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번 <별의 탄생\_Nomad.NO.1>, 17번 <달콤한 오후\_Snap NO.1>, 그리고 18번 <The Moment-생성공간>에 대해서 사회자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사회자 16번부터 18번까지 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한동안 대화 없음)

○○○ 일단 16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6번 작품을 보면 스테인리스 표면이 두 개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한 부분은 스테인리스가 우리가 말하는 표면 처리가 뭐 헤어라인, 미러, 뭐 슈퍼 미러 있는데 스테인리스 처리한 게 미러급 이상, 상당히 빛이 반사가 되는 거 쪽으로 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봤을 때 저 빛이 어느 시가 되면 해가 떨어지면서 저 빛이 세대 내부로 들어가면 저게 층수는 밑에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준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를 빛 반사에 대한 거는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16번의 문제고요.

18번에 가면, 18번은 작품성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불안한 형태인데 저 밑에 이제 기초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 보통 이제 저런 경우도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기초하고 연결시키는데 여기는 베이스 플레이트 없이 저 밑에 제일 하단에서 운행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기초하고 연결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좀 보강해서 이렇게 불안한 형태를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 이게 주차가 주차장 들어가는 회전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 그런 기능을 강조했을 때 높은 작품보다는 조금 나지막한 작품이 지나가는 운전자들로 인해서 조금 그게 또 좀 관람할 수 있는 작업이 들어오면 저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멀리서는 물론 보이겠지만 지나가면서 어떤 관람할 수 있는 위치적인 장점을 발휘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니까 16번 작품, 17번 작품, 두 작품 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아니, 16번 작품만 지금...

○○○ 16번, 네.

○○○ <별의 탄생> 이 작품...

○○○ 제가 12번 작품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 안 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아까 12번 작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번 작품도 좀 많이 본 형태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17번 같은 경우는 너무 좌우로 붙은 계열, 푸른 계열이 나누어져 있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형태적으로는 약간 바람에 날리는 나무숲처럼 재미있는 나무 형태 조형물이 아닌가 싶고요. 18번 같은 경우도 12번, 16번과 마찬가지로 형태적인 그런 애매함도 있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조상에서도 다시 고민이 되어봐야 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조각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대게 비슷한 건가요? ○○○ 선생님 의견을... (웃음)

○○○ 네, 그런데 17번, 18번... 18번 같은 경우는 조각하는 분이 아닌 거 같아요. 느낌에 딱 와닿는 게,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는 글썽요, 양쪽으로 입구에 이 좌우대칭을 설치한 거 자체는 차단하는 방법은 좋은데 너무 좀 가격에 비해서 너무 상투적이지 않나. 조금 색다르게 신선한 게 작품의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지는데요. 16번도 아까 전 12번에 있는 그런 류의 느낌. 요즘 많이 하는 ... 혼한, 보편적이고 무난한 거 그냥 좋게 말해서, 좋게 말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이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저도 16번은 전혀 별의 탄생인지를 모르겠어요. 제목과 그 조형물에 대해서 그런 연관성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리본 묶어서 놓은 것 같은 그런 장식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17번도 솔직히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디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설치되는 그냥 시설물같이 느껴져서 어떤 창

작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작품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생뚱맞은 구와 안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선이 있는 거는 참 좋긴 한데 저게 과연 수변 공간과 잘 어울릴 것인가? 그 다음에 주변에 색, 이렇게 색깔 있는 돌들이 놓여 있는데 서로의 조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저도 간략하게 좀,

○○○ 네.

○○○ 저는 요번에 심의... 사전 심의서를 좀 검토하면서 재심의를 올라온 작품들이 문제도 또 더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네, 재심의에 올라온 작업들이,

○○○ 네, 더 작품이 안 좋습니다.

○○○ 더 안 좋다고요, 네. 대부분 재심의,

○○○ ... 모르겠지만 아마 고민 자체도 본인들이 처음에 제출한 작품이 거절 당하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두 번째 거, 또 그 이유 때문에 거절당할 거라는 걸 예상 못 했는지 처음에 아마 통과가 못 된 이유가 두 번째에도 적용됐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16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너무 타성에 젖은 그런 형상이 아닌가. 뭐 본인은 이유가 있겠죠. 뭐 안전해야 되고, ... 이런 제약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제목하고의 불협화음뿐만 아니라 형태 자체도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그냥 어찌다 걸린 형태 같은 게 나와 버린 거 같고요.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크리스마스 말씀은 말씀 하셨지만, 양쪽에 아까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설치 장소를 잘 선택한 거 같긴 한데 거기에 과연 저 작품이 무엇을 응용한 것인가? 무엇을 변형한 것인가? 무엇을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바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전혀 떠오르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은 저도 처음 봤을 때 안정성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저런 메인 작품 옆에 구가 몇 개씩 놓여 있는 저런 장식성, 이런 거는 언제나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큰 게 하나 있고 옆에다가 동그란 거 몇 개 놔야지. 아마 그것은 기성에 설치된 작품들이 그런 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들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는 어떤 기대 때문에 저런 걸 자꾸 놓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메인 형상 자체도 보기에 불안하고 저게 어떻게 설치됐을 경우에 바람에 과연 견딜까?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리고 왜 조각은, 요새 조각은 다 하얏니까, 왜 하얏야 됩니까? 난 처음에 무슨 뭐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돌이나 뭐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저게 만약에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된다면 저거는 아마 1년도 안 돼서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화에 의해서. 너무 불안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형태 자체도 의미하는 작품의 제목과 맞는 거 같지도 않고, 아무튼 요거 세 작품은 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오상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이견 여담이지만 저희가 옛날에 조형물이라 그랬어요.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좀 영혼 없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 조형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공공미술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미술 장식품이라 그랬습니다. 예술과 장식은, 물론 예술 쪽에 장치 포함되겠습니다만 장식은 예술이라는 큰 집합 속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예술 장식품 그러니까 전부 다 내용 없는 그런 알록달록하고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인제 불식하기 위해서 건축 미술품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죠. 참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채점 중)

## 9. 송도동 29-12

19) 우수

20) 선을 위한 세레나데

위원장      다음 19번, 20번도 일괄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번 ‘우수’와 20번 ‘선을 위한 세레나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9번과 20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동안 대화 없음)

○○○      네, ○○○ 선생님.

- 아, 네. 죄송합니다, 자꾸. ○○○님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 (웃음) 예, 말씀하시라 그런건 아니라
- 아닙니다. 저도 미술작품... 조각을 전공해서 미술작품을 많이 내기도 하고 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좋게 좋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19번, 20번 작품 같은 경우는 재심의인데 솔직히 이 그전에 심의를 받았던 작품이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20번도 그렇고. 이게 너무 급하게 바꾸셔서 좀 형태적으로 불안하고, 구조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고, 솔직히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안 좋게만 얘기하는 거 같아가지고.
- 그런데 재심 작업들이 보면 원심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재심에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재심이 적체돼서 지금 보면 거의 반이 다 재심 안전이거든요. 참 그렇다고... 예, 무심의로 그냥 마구 다 통과시킬 순 없는 거지만 이렇게 심의 안전이 적체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같아요. ○○○ 선생님은 의견 없으신가요? 네.
- 자꾸... 이게 다 아는 분들 같은데, 참 말하기가 그러네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바깥에 나가서 얘기 안 할 거니까, 다 안 하시죠?

( “그럼요.” 하는 사람 있음)

불편해요, 왜냐면 너무 작품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표절이 되는 건데, 진짜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개인 전시장 같고, 도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먼저 1심에 들어온 작품이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거 같아요. 지금 미술하는 저 작품 보면 뭔가 시각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유기체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불편해요.

- 사실 재심의에 올라온 작품이 1차 심사 때 작품과 비교가 되면서 더 안 좋다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 처음에 1차 심사 때 올라온 작품은 사실은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 자체로서 거절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인제 두 번째 올라온 거는 첫 번째와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나쁘게 보이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아마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니까 그 동일한 생각 안에서 약간의 변화를 가했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작품이 저도 이제 두 번째 올라온 작품이 첫 번째보다 비교를 하자면 더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두 번째 작품이 더 나빠지기까지 한 것도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심 작품들이 자꾸 재심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보게 되는데 더 실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작품들 대부분이.

○○○ 제가 ○○○ 선생님 발언에 부연에서 저도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1% 법을 만든 입법 취지가 작가들의 생활을 돕고 그리고 도시를 미화한다는 것인데 소수의 작가들이 이 건축물 미술품 시장을 독과점 하면 애초의 입법 취지가 희석되는 거죠. 많은 작가들에게 그 기회가 가야 되는데 소수의 작가들이 시장을 독점하니까 거기서 많은 불만들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 자유경쟁 시장에서 “넌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마.”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겠지만, 또 소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작업을 독식하는 것도 이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딜레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번 작품은 가운데가 개구리알들이 모여 있는 건지 뭔가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징그러워요.

(채점 중)

## 10. 서구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 25-3롯데

21) Happy Family\_함께 사는 이야기

22) 숲-쉼터

23) Sliced images Sunday morning

위원장 다음으로 21번부터 23번까지는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21번 <Happy Family\_함께 사는 이야기>, 22번 <숲-쉼터>, 23번 <Sliced images Sunday morning>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21번부터 23번까지 작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습니다.

○○○ ○○○ 선생님, 조각 전공자이시니까 또...

○○○ 저는 사실 아까 풍선처럼 작품 되게 좋게 봤거든요. 재미나게 편안하게, 작품이라는 게 되게 거대하거나 아마 어떤 좀 무거운 메시지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먼저 작품 보다 훨씬 좀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게 동물이 대개 보면 경직되게 똑바로 앉았거나, 똑바로 서거나 하는데 이렇게 배를 뒤집어서 이렇게 나타냈고 아주 친화적으로, 인간과 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보이는 게 수평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 작품 ABC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A하고 C는 상당히 구상, 형태를 가지고 치밀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A랑 C 같은 경우는 형상이나 주제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단지 그거를 구현할 때 C 같은 경우는 ‘저거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저거를 고정시킬까?’ 라는 문제는 약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튼튼하게 고정해야 될 텐데. 만지고 막 치고 그럴 텐데 좀 우려가 살짝 되고요. 가운데 B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리고 조형 작품으로서 너무 키치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또 이게 아름다운 벤치를 만드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건지, 조형 작품을 가지고 한 건지 좀 약간 ... 타성에 젖은 형상적, 형상성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오히려 A랑 C처럼 구상 쪽으로 나아가는 것들하고 대비해서 보여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운데 작품은 뭐 나무를 변형하는 면에 있어서도 뭐 특별히 독창적이지 못한 거 같고, 그냥 미술 장식품이지만 또 극히 장식적으로 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좀 듭니다.

○○○ 21번 이게 실타래하고 실타래에서 나온 실하고 두 가지가 문제인데, 실타래에 저기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꼬집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물론 뭐 손 끼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유지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가 실타래에서 나온 실, 저게 지금 저 형상으로 갔을 때 어떤 걸로 하더라도 저 형상에 대한 내구성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작품 훼손까지 갈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리 조건부로 가더라도 어떤 변형이 나와야지 저 유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계속 채점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발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 조명 점검구가 있어서 실타래에 뭐 들어가도 빠질 거 같은데, 거기 조명 점검구...
- 내부 저기 다시 한번...
- 조명을 끼는 그 밑에 하단에 점검구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쓰레기라든가,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 ... 밑에 큰 ...
- 아, 저 구... 실타래 모양 안에 조명등이 들어간다, 안에. 네.
- ... 저거 보니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채점 중)

## 11. 운서동 2955번지 일원

24) INFINITY

25) Eternal Light : What makes the Dream

26) We are Still Hear

27) We are in the Wonderland

28) The Return of Nature

위원장 네. 다음 24번부터 28번까지 안건 순위는 24번 그리고 25~26, 27~28,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번 <INFINITY>에 대해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4번부터 28번까지는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규모가 10m, 10m로 돼 있네요. 그렇죠? 상당히 규모가 있는 작품이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왼쪽에 판재 형태로 돼 있는 라운드가 오른쪽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거 같네요. 그 부분을 좀 변화를 양감을 준다는가 변화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네요. 네, 저는 그렇

게 느꼈습니다.

○○○ 네, 제가 발언... 해보려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를 봤을 때 미디어 작업물이 너무 조형물이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미디어 작업물 안에서 플레이되는 거 자체가 보시면 뭐 풀이라든지 뭐 되게 단순화되어 있는 의미 없는 형태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 작품과 조금 더 어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환희, 봄·여름·가을에 대한 저런 미디어 작업 자체가 조금 저는 진부하고 그리고 의미가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소재도 조금 진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예, 25번의 작품 같은 경우는 물론 미디어와 조형적인 것이 결합되어서 어떤 극대화, 극대적인 좋은 효과를 나타내긴 어렵겠지만 지금 차츰 찾아가는 단계인 거 같고요. 미디어는 미디어가 더 잘하시는 분이 있고, 조형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조각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결합해서 하는 게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25번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재심 저번 작품보다는 더 조금 미래지향적인 작업으로 표현된 거 같아서 저는 25번 작품인 경우는 굉장히 잘 표현된 거 같습니다.

○○○ 네, 25번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작가, 굉장히 어떤 조형적으로나 미디어를 다루는 실력이 대단한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가격이나 이런 거 대비 뭐 제대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작품은 굉장히 이슈가 되는 작품이고, 예.

○○○ 예, 근데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거울로 세워져 있어서 비춰지는 공간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미디어로 보여주니까 훨씬 더 생동감도 있고 더 좋아진, 좋아 보이는 거 같아요.

○○○ 기둥 같은 게 네모난 기둥이 아니라 삼각형 기둥이라 표현이 조금 더 공간을 옆에서 봤을 때 배경, 뒷배경 공간도 잘 보이면서 미디어와 조금 조화롭게 이루어진 거 같은 작품 ...

○○○ 지금 <Eternal Light> 말씀하시는 건가요?

○○○ 25번이요, 네.

○○○ 네, <Eternal Light>.

○○○ 그러니까 ○○○ 선생님도 지금 <Eternal Light> 말씀하신 거예요?

○○○ 네.

○○○ 저는 24번, 25번 두 작품이 ... 조각하고 아까 미디어가 섞여서 쓴 작품인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적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계열의 전시 감독을 오래 했던 아주 경력이 많으신 그런 분한테 제가 어떤 다른 일로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야외에 미디어가 설치됐을 때의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는 데 아주 실험적이잖아요. 그게 관리 문제가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게 그림 같은 데는 상당한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야외에 있을 경우에 특히. 그래서 야외에 미디어가 설치됐을 경우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설치해 놓고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그런데 그게 고장났을 경우에 만약 미디어 때문에 없었던 효과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래서 야외에다 할 경우에 미디어의 부품은 아마 전체 조형물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미디어에 의해서 조형 작품이 변한다면 그거는 미디어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조형 작품은 더 심각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여기서 작품을 볼 때 좀 조형성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쪽만 너무 관철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조형적인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주변 공간과 어울리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미디어는 참조하는 부분...

○○○ 네.

○○○ 어떤 기계적인 거는 노출이 되지만 미디어 감독도 하고 해봐서 아는데 대신에 일렉트로틱한 부분이 다 은폐가 되기 때문에 요즘 미디어 작품이 야외에 있다 그래서 25번 작품 LA 카운틴 뮤지엄에 야외에도 좀 비슷한 작품들이 있고 또 ...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런 개념으로 미디어 작품을 보면 미디어 작품이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우리 도시에 가면 큰 전광판 같은 거 하나 설치하면 수십억 원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힘든 거죠. 이것들이 다 ...거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금 미디어 작품을 보면 이거 좀 시대착오적일 수가 있습니다.

○○○ 조형 작품이 항상 보면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보전 관리가 전무하거든요. ...

○○○ 그런 거를, 아마 그런 것들을 조건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 아마 충분히 대안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걸 조건부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게 통과가 된다면.

○○○ 현재 인천에 설치돼 있는 미디어 작품 중에 기간이 오래된 것들은 다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옛날에 백남준 님 작품들도 다 손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 예, 백남준 선생님 거.

○○○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런 게 있고요. 요즘에, 요즘 세상에.

○○○ 그런데 요즘 설치했다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이게 잘 보존된다는, 10년 지나봐야 아는 거죠.

○○○ 지금 24, 25 두 개를 하는 건가요?

사회자 현재 24번만 지금 ... 순서가 ...

○○○ 작가가 상징적으로 실체 보이려고 하는, 작품 설명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형상하고 좀 잘 맞아떨어질까 하는데 저는 구조는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그 반구 안에도 미디어가 나오는 상황인가요? 지금 재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어떤 영상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같은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 고리 형태에서만, 고리 형태로 좀 이제 ...

○○○ 이게 설치되는 그 공간이 아마 그런 쪽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뭐 그런 어떤 작품들 이런 것들 선호하는 그런 공간인 거 같습니다. 전통 개념의 어떤 조각 같은 거보다는.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던 걸 알았네요. 채점 할까요?

(채점 중)

위원장 네, 이제 25번 <Eternal Light>, 26번 <We' re Still Hear> 이거 맞죠? 네.

사회자 네, 25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아트 파일 재생 중)

○○○ 네, 제가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이전 작품이랑은 다르게 그래도 관람자가 조형물을 봤을 때 안에서 몰입도, 미디어 작품 자체가 몰입할 수 있게끔 돔 형태로 체험형 아트이고, 시민들이 유희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존에도 마찬가지로 비나 이런 거에서 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작품으로 있어서는 조금 괜찮은 작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미디어가 사람이 들어가야지 작동되는 거로 돼 있나요? 센서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항상 켜져 있는 걸로 되어있는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보전, 유지 문제가 좀 대두될 거 같은데.

○○○ 답답... 전체적인 주관에 답답해 보일 거 같은데요.

○○○ 어디 그 소리 안으로 들어가면요?

○○○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냥.

○○○ 아, 작품 전체적으로?

- 전체 외관도 그렇고...
- 그런데 이게 작품 5개가 전부 다 미디어 작업이네요.
- 한 점 빼놓고... 아, 두 점. 두 점이죠?
- 전부 다 지금 미디어 영상이 프로젝트 되는 거죠? 전부 다.
- 5개 다 미디어.
- 5개 전부 다 미디어적, 미디어가 들어가네요.
- 이 시설물이 약간 미디어 리조트 약간 이런 개념을 갖고 가는 거를 설명을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 그런 것 같고...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저기 저 소라 모양의 형태가 위치하는 데가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공간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거기 있어서 좀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형태가 있고, 사람들이 저 안에서 잠깐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는 점에서는 좀 좋게 평가하거든요. 보행 공간에 저런 큰 건축 공간이 또 들어가서 답답하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공간이 또 하나 창출됐다는 점과 또 저 리조트, 저 운수 시설의 성향이랑 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나쁘지 않게 봅니다.
- 여기 67페이지 보면 영상이 작동되는 어떤 기법이 나와 있어요. 센서가 아니라 송출 방식으로 하는 거여서 아마 이게 시간제로 일출이나 뭐 이럴 때 영상이 재생되는 시간대별로, 그게 조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 유지보수계획도 뭐 나와 있네요. 어쨌든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니까 ...
- 저도 제가 약간 디지털... 약간 디지털 미디어 조형물 이런 회사 디렉팅을 지금 했었고 하고도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는 LED나 요즘에

나오는 미디어 저런 재료라 해야 될까요? LED를 쓰는 저런 모듈들이 모듈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이제 수정하기도... 뭐 고장 났을 때 고치기도 좀 쉽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판을 다 갈아야 됐는데 지금은 부분만 할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유지보수 쪽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점 중)

## 12. 연수구 선학동 151-3외 20필지

### 29) 가족

위원장      예, 마지막 작품 29번 <가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29번 작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예.

○○○      제목이 가족인데 물론 조형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딱 봤을 때 가족이란 느낌이 사실은 조금 설명을 읽지 않으면 그런 느낌도 있고 오방색을 이용하긴 했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느낌, 약간 통일감에서는 조금 결여돼서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형성이 거기서 더 떨어지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조형성만 얘기하면 먼저께 더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안정감 있게, 제가 제주에서 아트센터로 유명한 좀 아는 작가인데 인천까지 진출을... 저 작가 한 30여 년 제주 돌만 가지고 작업하는 일관성 있게 작업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마 저걸 아마 저런 색, 색채도 잘 쓰는 작가인데 오방색, 오간색 아마 돌을 좀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주도를 알리면서 조형성을 표출하고 그런 어떤 작업인 것 같고, 아마 저 가족이라는 건 사람 형상으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환경 조형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너무 안정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 ○○○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이제 스테인리스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걸 작업해가지고 현무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가 실제 세워 놓으면 신선할 것 같습니다.



- 예, 제주도 돌문화공원이라는데 대표 작가입니다.
- 사실 조형 작품을 위해서, 조형 작품처럼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 작품의 연장 선상에서,
- 예, 그렇습니다.
- ...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1차 때 작품이 오히려 불안해 보여가지고 지금이 훨씬 더 안정된 거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사진상으로 볼 때는 일렬로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설명 들어보니까 위치가 좀, 위치의 변화도 있어서 저는 위치 설정도 잘한 거 같고, 안정감 있게 설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무암의 질감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냥 자체로도 작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시꺼먼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색깔 입힌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신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3D 제작하는 게 좀 떨어지는 분이 ...
- (웃는 사람들 있음)
- 실제 만들어 놓으면 ... 3D 하는 거에 따라서 ...
- 어쨌든 어쨌든 실제 작품들 괜찮습니다.  
... 스테인리스 중에 ... 그래서 아주 석재지만 일반 화랑 쪽이나 이런 . 재질이 아니고 현무암 쪽이라 ... 있어 보입니다.
- 조명등을 좀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자연 전기를 실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태양광이 쉽게 망가져가지고.
- 태양광이 빛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 예, 세지도 않고. 이거를 거기에 권고 사항으로 적어주면 어떨까, 만약 통과된다면.
- 조명 보완 설치, 보완 설치...

○○○

그 명판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까? 정가운데 있는데, 그 명판 위치를 조금 정가운데를 비켜서 설치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 집계결과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가결 작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 작품은 3번 <금강산만물상>, 또 회화 4번 <The Eternal Flame>, 5번 <아름다운 비행>, 6번 <바람의 숲>, 7번 <VIEW (뷰)>, 8번 <빛과 갯벌>, 9번 <Space>, 10번 <꿈꾸는 고양이>, 11번 <Love of the Sky>, 12번, 아니, 이거 아니지. 13번 <球-풍선>, 14번 <간석동에서>, 15번 <수평으로 함께> 그리고, 21번 <Happy family>, 22번 <숲-쉼터>, 23번 <Sliced images Sunday morning>, 24번 <INFINITY>, 25번 <Eternal Light>, 26번 <We're Still Hear>, 27번 <We're in the Wonderland>, 28번 <The Return of Nature>, 29번 <가족>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결 작품은 1번 <The Leave>, 2번 <카오스(CHAOS)>, 12번 <Seed\_Circulation of life>, 16번 <별의 탄생>, 17번 <달콤한 오후>, 18번 <The Moment>, 19번 <우수>, 20번 <선을 위한 세레나데> 이상 8건입니다. 이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또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아까 저기 4번 작품 <The Eternal Flame>이라는 작업 스테인리스를 이렇게 부착해서 반짝반짝하는 작업에 대해서 조건부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이 계셨고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의견은 권장 사항은 ‘따뜻한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셨고 조건부는 ‘스테인리스 무게를 감안하여 그 벽체에다가 앵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행 작품은 무게가 꽤 나가고요. 벽에 이제 수직으로 만든 하중은,

○○○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

예. 그러니까 웬만큼 뭐 사실 앵커보다 안전하겠지만 웬만한 강한 못

으로도 충분히 견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그러면 조건부를 걸 필요 걸,

○○○ 예. 그거는 아니죠.

○○○ 것까지는 필요 없겠다.

○○○ 예.

○○○ 제가 보기에선 저게 물론 작품 자체는 좋은데 저 작가 작품에 아크릴 케이스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게 높이가 아이들이 손을 닿으면 그 알루미늄판이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훼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려가 되기는 한데 훼손에 대한 거를 생각하자면 아크릴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드는 게 덮개라도 만드는 게 작품 보호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을,

○○○ 박스에 ...

○○○ 예. 여러분, 왜냐하면 저 작가가 다른 작품들 보니까 케이스를 한 게 있어요. 아마 그것도 아마 파손이나 이런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했던 것 같고요.

○○○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먼지 같은 게 앉으니까.

○○○ 예. 먼지도 그렇고 아마도 이렇게 손이 아무래도 저희가 140을 띄워도 보통 애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상황이라 좀 작품 보호와 안전상의 문제로 케이스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 ○○○님 의견도?

○○○ 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면,

○○○ 이게 아크릴 박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작품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 예. 그러면 여기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아크릴 박스 입히는 것을 권고하는 거로,

○○○ 권고. 예, 권고사항.

○○○ 권고?

○○○ 예.

○○○ 아니면 조건부?

○○○ 조건부.

○○○ 조건부로? 조건부로 좋겠다 하는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세요, 조건부.

○○○ 조건부가 강제성이 있다니까 조건부로 해야죠.

○○○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조건부 아크릴 덮개를 씌운다?

서기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문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 네. 알겠습니다. 아크릴 액자.

서기 ... 이렇게 할까요?

○○○ 예. 그리고 조명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 선생님?

○○○ 뭐 따듯 뭐 그거 큰문제는.. 권고 정도로 하죠, 뭐.

○○○ 예, 권고. 예.

○○○ 예. 따스한 .

..

○○○ 조건부는 아크릴 액자, 권고로 좀 따듯한 조명.

서기           색감이, 색감이 따뜻한 색감의?

○○○         따뜻한 색상으로 ...

서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조명으로 설치.

서기           ‘설치’ 이렇게 할까요?

○○○         예.

○○○         다음 조각 <아름다운 비행>에서 권고가 무엇이 있었냐면 ‘절단면이 날카롭지 않게 해서 절단면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조각 <VIEW (뷰)> 숲,

서기           잠시만요. 5번에 권고사항으로 명확한 문장을 써야 되는데요. 세부 마무리를 절단면...

○○○         절단면 마감 처리를, 부드럽고 안전하게.

서기           ‘부드럽고 안전하게 조치’ 이렇게 할까요?

○○○         예.

서기2         그다음에 7번이 있어요,

○○○         예. 그다음 <VIEW (뷰)>, 일곱 번째 작품 <VIEW (뷰)>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 바닥 부위의 손목 노출의 길이를 증가시켜서, 전체 높이를 증가시켜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끔 한다 그 얘기죠?  
손목 길이를 좀 높인다. 이것은,

○○○         손목이 나타나도록 해라.

○○○         예, 예.

서기           이거 조건부입니까, 권고입니까?

○○○           조건부예요, 이거는.

○○○           조건부인가요? 예. 이거는 조건부로 가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           노출, 절개 다시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조건부가 괜찮을 것 같아요.

○○○           예, 예. 조건부.

○○○           손목의 높이를 높여서,  
손목이 노출되도록 ...  
절단되지 않게, 손목이.  
높이 조정해서,  
시점도 높게 부딪히지 않게,  
높이를 ... 내부 높이를 높게 한다.

○○○           ... 작가 작품을 바꾸는 거 아닌가요?

                  (일동 웃음)

○○○           ... 뭐 좀 올리는 거니까.

○○○           예. 그게 또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           ... 전화 받으실 분이 추가 질문할 수 있게끔 미리 들어보시고,

서기           예.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           예, 예. 무슨 말인지 ...

○○○           절단되지 않게, 손목이 절단되지 않게 이렇게,

서기           ‘손목이 절단되지 않게’ 할까요?

○○○           그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 아, 예.

서기 표현이 맞나요?

○○○ 그냥 절단되지 않게 손목을 노출시켜서 ...

○○○ 예.

서기 ‘손목을 노출시켜 ...’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예.

서기 괜찮나요?

○○○ 예.

○○○ 예. 다음, <빛과 갯벌>이라는 작업입니다.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내용은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작품이 또 다른 작품과 함께 몰려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가로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 9번 ...그거는 <Space> ... 9번, 9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 예, 예. 9번입니다.

○○○ 무례하죠?

(웃음)

○○○ 예. 그림을 제가,

...

○○○ 이거 잘못 써진 것 같은데?

○○○ 그러니까 조정, 조금 더 좋은 장소로 옮겨볼 것을 권고함이겠죠.

○○○ 더 좋은 장소로,

○○○ 예. 위치 이동을 권고함.

○○○ 설치 위치를,

○○○ 예, 설치 위치.

사회자 이거 심의 과정에서 이제 작품을 아까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로로 했던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 예, 예.

사회자 9번에 대해서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 권고로 넣으셔가지고 아까 작품을 가로로 하는 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

○○○ 예, 아니죠. 지금 이 작품은 세로작으로 해야 돼요.

서기 아, 지금 혹시 요 표현은 8번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 예.

서기2 8번에 대한 내용.

○○○ 예, 예.

○○○ 그리고 9번, 조건부에 9번,

서기 9번은,

○○○ 작품을 가로...

서기 이거 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 예.

서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예.

○○○ 저것도 8번에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라는 거를 복사해가지고 앞에 다 치고요.

서기 예.

○○○ 그다음 란에 작품을 가로로 이렇게 ...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예. 세로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가로로 바꾸자 라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 지금 이거 이게 9번 작품이죠?

사회자 예. 9번입니다. 해바라기요.

○○○ 아, 해바라기. 예, 예.

○○○ 도서 상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과연 가로로 했을 때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가로로 했을 경우에 좀 더 ... 얇은지, 공간이 좁아서.

○○○ 그렇다고 하면 뭐 세로로 하되 전체 높이를 뭐 올려서 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 그래픽 상으로는 가로가 배치가 ...

○○○ 아, 예, 예. ...

○○○ 크게는 해야 되겠고 우리가 세로로 ... 크게는,

○○○ 여기 가로는 잘 맞을 것 같은데, 이 공간에서는.

○○○ 그림 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 그래픽이 맞는지 ...

○○○ 그래픽 할 때 스케일 크기를 맞춰서 보통 하죠.

○○○ 예, 그렇죠.

○○○ 평면도 한 번만...

○○○ 가로로 하면 또 아래, 바닥에서 높이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 그렇죠. 예, 가로로 가면.

서기 여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4m 6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가로가요?

서기 예. ...

○○○ 이 작품이 2m 60이잖아요. 지금 좌우로 2m씩은 맞네요.  
예. 충분하네요.

서기 4,600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가로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세로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가로로.” 하는 사람들 있음)

○○○ 가로로? 예, 알았습니다.

○○○ 그런데 하나 의견이 있는데요. 가로로 설치할 경우 키네틱 아트적인 분위기거든요. 한쪽 면에서는 잘 보이는데 거기 위로 이렇게 된 거잖

아요. 옆으로 이렇게 한쪽 면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구멍만 그냥, 안에 구멍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 아, 입방체 모양이요?

○○○ 그렇죠. 지금 위로 ...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쪽에서는 제대로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그냥 안에 속만 보일 수가 있어요.

○○○ 아, 그래서 세로로 했을 수도 있겠네요.

○○○ 그렇죠.

○○○ 그러면 우리가 바꾸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가 ...

○○○ 세로 길이만 줄여서 ...

○○○ 예,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 그러네.

○○○ 가로로 바꾸는 거는 조금 무례하네요.

(일동 웃음)

○○○ 아닌 것 같네요.

○○○ 치수만 좀 줄여서 ...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세로 작품 가로로 바꾸라는 거 나는 처음 봤습니다.

(일동 웃음)

○○○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서기           이거 내용 지우겠습니다.

○○○         예, 지워주세요.

서기           다시 한번 정리해주십시오.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         세로,

○○○         세로로 그거는 2,200 정도로 줄여야지 ...

○○○         많이 잘라야 되잖아, 그러면.

○○○         예. 일단은 ...

○○○         위에 사각형 3개만 ...

○○○         작가가 선택하겠죠.

○○○         그런데 이게 마치 사방 연속무늬 같은 작업이고 똑같은 패턴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생각하기에는 가로로 봐도 크게 작품 성격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아까 작가는,

○○○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         그렇죠. 그 사람은 대리인입니다.

○○○         그렇죠. 그렇죠.

○○○         대리인,

○○○         작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로 설치 또는 전체 높이 ...

○○○         전화를 지금 해볼 수 없을까요?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꾸라고 했는지를 제시를 해야 돼서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게 장애인 그거를 명시를 해줘야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

○○○ 그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 그렇게 하면 자기가 또 뭐 가로로 적용을 하든 하겠죠.

○○○ 그러니까 도면이나 지금 그래픽 상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 핸드레일이 있으면 그래픽에 나왔어야 되는데.

○○○ 바닥이 지금 경사로기 때문에 핸드레일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 예, 예. 그거를 명시해 줘야 되겠네요.

○○○ 바닥이 경사로예요?

○○○ 도면상으로는 경사로로,

○○○ 거기 ...한데,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서기 도면이요? 예. 건축 하시는 ...

서기2 ○○○ 위원님이 좀 정확히 표현해주세요.

○○○ 예. 한번 확대 한번 해주시면 저기 빨간 부분,

○○○ 아~ 경사로네.

○○○ 저기 경사 표현이 있고, 거기에 수치가 표현돼 있는데 제가 기억에 30cm 정도 격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아, 30cm가 ... 이요?

○○○ 예.

○○○ 그래픽 하는 분이 이걸 몰랐구나.

서기 그래픽에 반영이 안 된 거죠?

○○○ 예.

○○○ 그렇다면 저게 이제 법적으로는 손잡이를 이제 바닥에서 800 ... 900 사이에 손잡이를 ...

○○○ 그러면 가로가 훨씬 적당한데 작품이 세로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곤란한데요. 바꾸기도 곤란하고 실질적으로는 가로로 했으면 좋은데요.

○○○ 바닥 경사면을 보완할 수 있는 작품 ...

○○○ 길이, 길이 조정.

○○○ 거기 장애인,  
길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 핸드레일, 설치로 인한,  
그렇다고 막 작품이 사실,  
하염없이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서기 예. 설치로 인한 작품 길이 ... 간섭되지 않도록,

○○○ ... 크기를 조절하여 설치.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

서기 높이를 조절하여?

○○○ 높이라고 하지 말고 작품 크기를 조절하여 설치.

서기 작품 크기를 조절하여 ... 표현 명확합니까?

○○○ 예.

○○○ 된 건가요? 오케이?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풍선.

아, 예. 그다음에 조각 <풍선> 이것이 조건부 하나 있었는데요. 조건 내용이 뭐냐면 ‘견고한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둥 위에 구가 풍선이 설치되는 거라서 기둥을 튼튼하게 설치해라.

아이들이 이거 잡아당길 수 ...

예. 아이들이 이제 잡아 흔들 수 있으니까.

○○○ 아이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먼저 공간을 좀 확보해라.

○○○ 예, 예. 그리고 소녀하고 소녀 뒤에 있는 그사이의 기둥이 좀 거리가 가까우니까 기둥을 약간 떼서 아이들이 소녀와 소녀 등과 기둥 사이를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공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 아까 ○○○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둥 규격도 명시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 그거는 괄호로 하고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 괄호하고 기둥 규격만 명시.

서기 ‘기둥 규격 명시.’ 이렇게 할까요?

○○○ 예.

서기 예.

○○○ 예. 됐습니다.

○○○ ... 공간 확보하고 ...

서기 공간 확보.

○○○ 공간 확보, 예. 공간 확보가 더 좋을 것,

서기 예. ‘소녀와 기둥 사이에 공간 확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 예. 그다음,

○○○ ‘공간 확보 필요함.’ 이렇게 ...

서기 아, 예. 알겠습니다.

○○○ 그다음 14번 작품 <간석동에서>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 예. ‘이 작품이 안전하게 걸릴 수 있도록 벽체 고정 방법을 보완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이죠?

○○○ 작품 설치할 벽체.

○○○ 뭐라고 고치면 될까요? 벽체를...

서기 안전하게,

○○○ 벽체와 안전하게 고정.

○○○ 설치할 도면을 제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 예. ...

○○○ 작품이 설치될 벽체를,  
작품과 벽체와, 벽체가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 예.

○○○ 벽체에 작품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 벽체에, 앞에 벽체에,  
벽체에 작품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 방법을 제시.

○○○ ... 있는 도면 제시.

○○○ 예, 예.  
좋습니다.

○○○ 15번도 요구 조건이 동일합니다. 예.



서기           같은 내용 ...

○○○           예,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           그다음 21번 <Happy family>는 조건이 있는데 ‘실타래 사이에 오물이  
끼 우려가 있다.’ 또 하나는 ‘실타래에서 풀려나온 실이 흔들려서  
부러질 염려가 있으니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도면으로 제시하  
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           실타래 형태의 틈을 메꿀 수 있는,

○○○           아까 전구 끼 수 있는 전등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전구를 좀 크게 하라든  
가 뭐 그러면,

○○○           전구는 별로 문제될 것 같지는,

○○○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실 ...

○○○           그런데 아까 ...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치웠거든요, 제가 적은 거  
를

○○○           실타래 선만, 선만 ...

서기           선만? 선만 있으면 됩니까?

( “예.” 하는 사람들 있음)

○○○           실타래에서 풀려나온 실.

서기           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실의 보완책. 예. 보완책을 제시.

서기           실을 조금 더 ...

○○○           내구성 유지 방안 ...

에 대한 ...

서기           를 위한 보완책 제시?

○○○       예, 제시.

서기           괜찮습니까?

○○○       예, 예.  
( “예.” 하는 사람들 있음)  
( “좋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       그다음 작품 <쉴-쉼터>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부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거기 스테인리스 플레이트가 아니었던가요?

○○○       그게 스테인리스로 안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스틸 같습니다.

○○○       스틸 판이에요?

○○○       예. ...

○○○       스테인으로 해야 되는데. 베이스 플레이트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 예.

서기       베이스 플레이트 ...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 제시.’ 이거 맞습니까?

○○○       예. 괄호 치고 ‘스테인리스 판’ 이라고 써주시죠.

서기       예. 스테인리스 판.

○○○       15T, 예. 두께도 한 15T가 돼야 안전하죠. 예. 15T.

서기       15T요?

○○○       예. 티크니스 T예요, 15T, 알파벳 T.

○○○ 15T 이상입니다.

서기 15T 이상으로 할까요?

○○○ 예.

서기 예.

○○○ <Sliced images> 예.

서기2 ... 바퀴에 대해 사람이 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바퀴에 대해서?

서기2 예. 그거를 조금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 어느 바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앞뒤 바퀴가 있는데 애들이 딱 들어가기 좋은 식이더라고요.

○○○ 아, 그 공간이?

○○○ 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 23번 <Sliced images> 작업은 ‘자전거 바퀴에 아이들이 지나가다 기어나오게끔 그 사이로 지나가다 끼일 염려가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기 죄송하지만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서기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 23번 조각입니다.

○○○ 안전하게 고정돼야 될 텐데 밀어도 안 넘어지...

○○○ 좋은 의견 줌... 그 공간이 몇 cm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간이 크면,

○○○ 그 작품 높이가 한 4, 5m 되는 것 같은데.

서기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비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만큼이 1m입니다. 한 바퀴가 1m이거나 조금 더 크거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례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이 머리까지가 4m거든요. 4m 비례해 보시면 120, 130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애들이 들락날락하기 딱 좋네요.

○○○            앞에 바퀴는 더 큰데 저 뒤에 바퀴 있잖아요.

서기            예, 여기요?

○○○            그 높이가 또 조금 앞에 바퀴, 바퀴보다 높잖아요.

○○○            그러네.

○○○            저게 뚫려 있다고 애들이 가서 꺾길 것 같지 않는데.

○○○            나는 원래 저거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거에 더 중점을 뒀는데.

서기            바닥에 ...

○○○            예, 예. 옆에 앵커볼트 박았잖아요. 이거 이제,

○○○            그거는 제가 봐도 잘했더라고요. 안 되면 바퀴살을 한 두 개나 세 개를 더 만들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나? 작가가 작가 의도하고 다르나?

○○○            음, 또 그렇네요.

○○○            그것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동 웃음)

서기            삭제합니까?

○○○            예.

서기           예, 알겠습니다.

○○○          28번 <The Return of Nature> 이것도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구조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러셨는데요.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매달려, 이게 천장에다 매달려 있는 작업,

○○○          매달려, 튼튼하게 매달 ...

○○○          예. 튼튼하게 매달면 되죠.

서기           조건부입니까?

○○○          이거 작가들이 평생 이런 거 해오는 건데 당연히 튼튼하게 매달겠죠?

○○○          예.

○○○          그거 재료값 아낀다고, 재료값 똑같아요, 저는. 자기 작품을 설치하는 건데 허술하게 할 작가가,

○○○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          권고를 해서, 예.

○○○          ... 해줘야 될 것 같은데 ...

○○○          안정적인 설치.

○○○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시는 뭐 했냐 ... 안정적으로 설치 안 된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서기           설치 권고. 어디를? 천장에?

○○○          정확하게 천장 메시,

서기           아, 예. 불러주세요.

○○○ 천장 메시 철망이라고 쓰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서기 예.

○○○ 예. 철망하고 괄호치고 메시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서기 아, 예. 알겠습니다.

○○○ 그 앞에 천장 메시, 메시는 빼세요. 천장 다음에 메시지를 빼시면 되겠네.

서기 아, 이거 빼고요? 예.

○○○ 예.

○○○ 마지막 작품 <가족> 작품에 권고사항 및 조건부 사항이 있습니다. 권고는 ‘돌이 갖는 무게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앵커를 훨씬 강한 굵은 스테인리스 앵커를 썼으면 좋겠다.’

○○○ ... 안정적 설치,

○○○ 예. 안정적 설치를 위해서 앵커를 견고한 것으로, 예.

서기 29번 안정적 설치를 위해 앵커를 ...

○○○ 예. 견고한 것으로.  
예, 사용할 것.

○○○ ... 앵커가 보니까 아까 일자로 돼 있던데 사실은 아래위에 여기 조그마한 저기를 해서 대줘야 돼요, 플러스 십자 형태로. 그래야 안 뽐혀요.

서기 ... 십자형?

○○○ 예. ...

○○○ 그 앵커 이름이 뭐죠?

○○○ 뭐 무슨 앵커라 그러더라? 그런 앵커를 ...

○○○ 그런 거를 써주면, 음...

사회자 심의 당시에 아까 조명에 대한 보완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명판 위치도 변경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 조명등을, 아 지중등을, 아 뭐죠? 태양광 조명등을 쓰지 말고 기존의 전선을 이용한 조명등, 예.  
태양광 조명 대신에,

○○○ 기성, 기성,

○○○ 유선으로 하라고, 유선.

서기 유선으로 할까요? 유선,

○○○ 예, 예. 유선 조명. 예, 예. 유선 조명 설치. 예. 예, 좋습니다.

○○○ 명판 ...

○○○ ... 명판 간격 위치를,

서기 명판 위치 변경.

○○○ 명판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 아, 29번 작품이요?

○○○ 예, 예. 가운데 있어가지고.  
작품 보는데도 이게 방해가 되니까 양 주변으로, 작품 주변으로 ... 괜찮습니까?

○○○ 됐나요? 예.

○○○ 조건부 및 권고 논의는 지금 하도 건수가 많아서 좀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의논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별도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는 사람들 있음)

위원장 전부 29건을 검토한 끝에 21건이 승인을 받았고요. 8건이 승인 거부됐습니다. 승인받은 작업 중에 8건의 조건부 승인, 그리고 5건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것으로써 2022년 제10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끝.